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태엽 감는 새(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론 — 현대일본인의 상실감과 노몬한 체험을 중심으로 —

김효순*
uzzanzi@yahoo.co.kr

Contents

1. 서론
2. 본론
3. 결론

Abstract

『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は戦争の暴力を相対化し、その暴力装置に対する内的な責任を問おうとする作家の歴史的暴力に対する認識を第2次世界大戦で恣行された暴力と関連づけて描いて見せる。それを本論文では、クミコの失踪事件を通じて春樹文学を貫いているテーマである現代人の喪失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可能性の問題から出発し、ノモンハン戦闘と第2次世界大戦まで遡って検討してみた。それで『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には、戦争の間、個人から自分の意志と価値観によって運命を選択する権利を剥奪した者たちが、責任を負うこともなくあいかわらず政治的影響力を行使し、個人を無感覚なからっぽな存在にしてしまう暴力的世界から、失われた存在感を回復するためには、いかに微弱なことであれ何かを自分の意志で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が秘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作品の執筆時期である1990年代の初めは、東西冷戦体制の崩壊とバブル経済解体に乗じて日本で新保守主義が登場した時期で、国際的に侵略戦争や従軍慰安婦の記述に反撥する言説と運動が浮上し、アジア各国による戦争責任の追及が本格化した時期である。この時期に作家はアメリカに滞在しながら日本の国内状況を外部から相対的な眼差しで眺めることができたろうし、それがきっかけとなって個人の問題を歴史や国家との相関関係の中で考えてみたかったのであろう。そのような問題の追求は、過去大東亜共栄圏という幻想が多くの人々の生と運命を空っぽにし無力化したのと同じように、現在でも戦争への責任を負うことなく社会への影響力を行使している過去の亡霊たちが個人の生と運命を空っぽにし無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力化しているという現実を明らかにして見せる。このような現代人の喪失感の追求は、責任の主体を曖昧にする新保守主義の登場と歴史歪曲、それに伴うアジア各国からの戦争責任問題の提起という作品の執筆時期の日本社会の状況にどのようにコミットするかに対する作家の答えだと思われる。

しかし、その答えには日本人としての個人の喪失感や運命の問題しか含まれていない。アジア諸国にいる戦争の本当の被害者の声への答えは含まれていない。しかもここで現代日本人の喪失感の根源として戦争が取り上げられる際には、失敗した戦鬪の代表と評価されているノモンハン戦鬪と、1945年の敗戦に追われる日本人たちの運命にだけ関心が寄せられている。勿論戦場で日本人が恣行した残虐な暴力行為に関しては語られてはいるが、それはモンゴル人、ロシア人、ドイツ人の残虐行為といっしょに語られることによって、どの戦争でもありうる戦争の普遍的状況のように描かれている。ここに、空虚感を媒介とした春樹の歴史認識が、どのような地点に辿り着き、現代日本人の集団的な無意識と共振するに至ったの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Key Words : 村上春樹、第2次世界大戦、『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現代人の喪失感、ノモンハン事件

1. 서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태엽감는 새(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는 제1부, 제2부가 1992년부터 1993년 8월까지 연재된 후 1994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고, 1995년에 제3부가 완결편으로 출판된, 신초(新潮) 문고판으로 장장 1200페이지 분량이 되는 본격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는 결혼 6년차 된 평범한 ‘나’ 오카다 도오루(岡田亨)가 어느 날 고양이가 실종된 후 뒤를 이어 아내 구미코(クミコ)가 가출하자 그들의 행방을 찾으려 전개되는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노몬한 전쟁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소드와 관련되어 전개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소설에 여기저기 던져진 수수께끼가 해명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점, 불필요한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견해¹⁾

1) 예를 들면 安原顯의 『本など読むな』(図書新聞, 1994), 中條省平 『リテレール』(1994, 夏号), 鈴木和成 『村上春樹クロニクル 1983-1995』(洋泉社, 1994) 久居つばき 『ねじまき鳥の探し方—村上春樹の種あかし』(太田出版, 1994) 등이 있다.

와 작가의 컨트롤을 벗어난 자율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커미트먼트라는 것에 대해 최근에 자주 생각합니다. (중략) 전에는 디태치먼트가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중략) 그것은 제가 외국에 있었던 것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²⁾’라는 작가의 언급을 바탕으로, 작품이 기존의 작품세계와는 이질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며 하루키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작품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었던 등장인물들이 이 작품에 들어서서 개인의 문제를 국가나 역사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작품 세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작가의 다음 언급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결국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의 압도적인 폭력을 상대화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이런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매우 애매한 말로 바뀌어 아무도 그 폭력 장치에 대한 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⁴⁾

『태엽 감는 새』라는 소설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만, 내 자신 속에 있는 역사적 폭력 인식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이 발견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⁵⁾

이 언급에서, 『태엽 감는 새』는 전쟁의 폭력을 상대화시키고 그 폭력 장치에 대한 내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작가의 역사 인식을 다룬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작품 안에서 그 역사적 폭력 장치는 1939년 노몬한 사건⁶⁾을 중심으로 그것

2)村上春樹, 『村上春樹、河合隼雄に会いに行く』(新潮社, 1999), p.18

3) 예를 들면 風丸良彦는 『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원인을 「もちろんそれは読み手の責任ばかりではなく、それだけの政治的なメッセージ性を持つ村上の作品にかつて出会ったことのない僕だけに、村上春樹がアプローチの転換を迫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もどかしさ」という凶器』, 『群像』 97年3月)라고 밝히고 있다.

4)村上春樹, 전계서, pp.200~201

5)村上春樹, 상계서, p.214

6) 노몬한 사건은 일본측이 부르는 명칭이고 서구 쪽에서는 할хин-골(Khalkhin-Gol) 전투라 한다. 1939년 만몽(滿蒙) 국경지대인 노몬한에서 일어난 일본군과 몽골·소련군 간의 대규모

을 전후로 전개된 전쟁에서 자행되었던 폭력과 관련되어 이야기되어진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 폭력에 대한 인식은 하루키 문학의 일관된 테마라 할 수 있는 현대인의 상실감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본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역사적 폭력 장치로서의 전쟁은 무엇이며, 그것이 작품 내 현대일본인의 상실감이나 존재감과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나(僕)’ 즉 오카다 도오루가, 실종된 아내 즉 와타야 구미코(綿谷クミコ)를 찾아가는 행위와 관련지어 검토해 보겠다. 이는 하루키 문학의 역사인식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가 국제적 작가로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일본인의 전쟁체험에 대한 기억의 검토, 더 나아가 인류의 전쟁체험에 대한 기억 재고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본론

1. 작품 내 시간과 집필시기

서론에서 언급한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먼저, 작품 내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1983년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작품을 집필한 작자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품 집필 시기, 작품 내 현재 시간, 작품 내 등장인물들의 과거, 작품 내 역사의 시작이 되는 노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검토해 보겠다.

충돌사건을 말한다. 당시 만주는 일본 관동군(關東軍)이 장악하였는데, 노몬한 부근은 국경선이 확실하지 않아 가끔 분쟁이 일어났다. 1939년 5월 몽골군이 할하강(江)을 건너오자 일본군은 불법월경(不法越境)으로 간주해 충돌하였는데, 이때 몽골과 상호원조조약을 맺은 소련이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여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이에 일본은 만주에 주둔해 있던 항공·전차 병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였으나, G. K. 주코프 지휘하의 소련군 및 몽골군의 반격을 받아 참패, 사상자(死傷者)가 2만 명에 달하였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양국은 서로 극동에서의 전쟁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그 해 9월 정전(停戰)협정이 성립되어 수개월에 걸친 국경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듬해 두 나라는 만주·몽골의 국경선을 대개 소련의 주장대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군은 이후 화를 입지 않으려고 아시아군에게서 벗어나 멀쩡이 떨어져 거리를 유지했다.

작품 집필시기인 1990년대 초는 한마디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버블경제 해체 시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쇼와 천황의 사망(1989), 베를린 장벽 해체(1989), 걸프전(1990), 구소련해체(1991) 등으로 이어지는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금융 긴축, 지가 억제책 등으로 인한 버블 경제 해체를 틈타 일본에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나 ‘자유주의사관’ 그룹이 결성되어 침략전쟁이나 중군위안부 기술에 반발하는 담론이나 운동이 부상되었고, 이와 연동하여 아시아 각국의 전쟁 책임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일본군위안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의 집필 시기는 국제적으로 일본 내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국제적으로 전쟁 책임 요구라는 서로 상충되는 역사인식의 대결구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작가는 미국이라는 일본의 외부세계에서 일본 사회를 상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본 작품의 집필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작품 내 현재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1985년을 전후로 한 시대는 1970년대 말의 석유파동을 극복한 후 일본경제가 버블경제의 고조기에 달해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비정상적 흑자의 연속, 주가, 지가 급등 등으로 인해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은 ‘국민 한 사람당 100달러씩 외국제품을 삼시디’라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신중간층이 성립되었고 그들은 생활양식, 의식면에서 균질적인 거대한 층으로 출현하여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양식, 소비, 정치동향을 좌우하게 되었으며, 정치의식은 보수화되었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구별이 애매해지면서 일본은 고도대중소비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 각국으로부터는 일본의 전쟁에 대한 책임문제가 부상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움직임의 계기는 1983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침략전쟁 미화에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 측은 일본이 남경대학살의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했고, 화북 ‘침략’을 ‘진출’로 표시했으며, 중국에 대한 전면 ‘침략’을 ‘침공’으로 표시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는 전시 중 조선인노동자 강제연행을 징용으로 얼버무리고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는 ‘아시아 제국가들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낙차가 이 때 만큼 부각된 적은 없다’⁷⁾고 증언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작품 내 현재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1980년대 초는 교과서 문제나 역사인식의 문제를 계기로 아시아 침략에 대한 실태가 이야기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교류가 증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작품 내 등장인물들의 과거로 설정되고 있는 1979년쯤 즉, 1970년대 말은 어떠한 시기였을까? 1973년 시작된 중동전쟁이 석유전쟁으로 비화되면서 닥친 제1차 석유파동은 세계의 경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게 했다. 이러한 불황은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에 심취한 일본인들에게는 심리적 고도경제성장의 종언을 의미했다. 이어서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일본국민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여 극복한다. 이는 기술자, 노동자의 귀속의식, 충성심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에 따라 중고년의 인원정리, 단신부임, 잔업, 과로사가 이시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었으며 노동조합은 저항력을 잃고 노사협조와 국민 일체 노선에 따르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작가의 현재의 문제의식, 작품 내 등장인물들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차차 거슬러 올라가면 그 현실의 시작은 작품 속에서 역사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노몬한 사건과 1945년 패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사는 작품 내 현재의 등장인물들의 현실,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는 현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2. 작품 내 역사와 등장인물의 현실

작품의 주인공 '나' 오카다 도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평범한 30세 남성으로 1978년 와타야 구미코와 결혼하여 5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양이가 사라지면서부터 낯선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폰섹스를 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물의 성분이 신체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는 가노 마루타(加納マルタ)와 그녀의 동생 크레타가 찾아오기도 하며, 등교를

7) 中村政則 『戦後史』(岩波書店, 2006年 6月), p.166

거부하며 가발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6세의 조숙한 소녀 가사하라 메이(笠原めい)를 알게 되기도 하면서 단조로웠던 오카다의 일상은 혼란에 빠진다. 거기에 구미코의 친정 아버지가, 그를 만나는 것을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점쟁이 혼다(本田)씨의 죽음과 그의 유품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마미야 중위(間宮中尉)의 등장, 아내 구미코의 가출과 이혼요구 편지 배달로 나의 생활의 혼란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 구미코의 가출원인과 혼다라는 점쟁이가 왜 굳이 나에게 유품을 남기려고 한 것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가 남긴 유품은 위스키 카티삭 증정용 선물상자였다. 그것도 내용은 없는 ‘텅빈 것’이었다.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현재 나의 상황과 구미코의 가출이유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구미코의 가출과 와타야 노보루의 세계

구미코의 가출원인은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오빠 와타야 노보루의 말과 편지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불륜에 있다. 그녀는 회사에서 알게 된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서 나와와 사이에서는 맛 볼 수 없었던 쾌락을 느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지금은 그와의 관계도 끊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더럽혀진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출의 진짜 원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진짜 가출원인과 행방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 그녀의 가출원인에는 그녀 자신의 성장배경과 오빠 노보루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그렇다면 구미코의 성장환경은 어떠한 것이었고 와타야 노보루의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① 구미코의 성장환경

구미코는 갈등을 겪고 있는 엄마와 할머니의 잠정협정의 결과 3세부터 6세까지 할머니의 손에 의해 길러진다. 6세 때 부모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에게 가정은 낮은 환경이었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언니가 있었지만 식중독에 걸려 다음 해 죽고 만다. 이후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언니의 대용품으로

취급되었고 그러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언니가 죽은 것에 대해 죄악감을 갖게 되면서 복잡하게 굴절된 소녀시절을 보낸다.

구미코 아버지는 니가타(新潟)의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는 농가의 둘째 아들로 장학금을 받고 도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운수성(運輸省)의 엘리트 관료로 매우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다. 명령하는데 익숙하고 자신이 속한 세계의 가치관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는 조직이 전부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력에는 굽실거렸지만, 아래 사람을 짓밟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었다고 그려지고 있다. 그는 현재의 일본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메이지 인(明治人)들의 가치관과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간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구조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약육강식의 계급사회이므로,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은 한 단이라도 더 높이 사다리를 오르려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건전한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구미코 엄마는 도쿄의 야마노테(山の手)의 고급관료의 딸로 부족한 것 없이 성장했으며, 남편의 의견에 대항할 의견도 인격도 없는 존재이다. 허영심에 가득 차있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두뇌를 지배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뿐이다. 그녀는 남편의 지위와 자식의 학력 밖에 관심이 없으며, ‘아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복한 소년시절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녀의 상상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그려지고 있다.

② 와타야 노보루의 세계-텔레비전과 컴퓨터

이상과 같은 구미코 가족 세계의 결정체는 그러한 부모의 가치관의 구현체인 와타야 노보루의 세계이다. 그는 구미코와 9살 차이로, 현재 37세이다. 그의 성장기는 ‘덕분에 그는 물질적으로는 극히 넉넉한 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인생에 가장 다감하고 민감한 시기에 그에게는 여자 친구를 만들 틈도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여유도 없었다’라고 언급되고 있듯이, 구미코와는 다른 의미

에서 즉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요구받는 성장기를 거치며 굴절된 소년시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노보루는 자신의 의지, 가치관을 지니지 않고 부모로 대변되는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사회의 의지를 실현하는 빈껍데기 인생을 살며 그의 삶에 대한 욕구는 죽은 동생의 옷에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된다. 물론 그는 표면적으로는 사립고등학교, 도쿄 대학 경제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자의 길을 걷는다. 예일 대학 대학원 졸업 후 귀국하여 부모의 권유에 의해 맞선으로 결혼하지만, 2년 만에 이혼한다. 3년 전에는 두꺼운 책을 저술했고 매스미디어는 그를 새 시대의 영웅으로 소개한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세계를 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곳에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깊은 신념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계관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일면적인 사고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세계였다. (중략) 만약 그의 의견에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의견에는 항상 일관성이 없다’라는 일관성뿐이었고, 만약 그에게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세계관이 없다’라는 세계관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락은 역으로 말하자면 그의 지적인 자신이조차 했다. 일관성이나 확고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시간을 잘게 나누어 이루어지는 매스 미디어에서의 지적 기동전에는 불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커다란 메리트가 되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순수한 전투행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냥 공격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와타야 노보루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적인 카멜레온이었다. 상대의 색깔에 따라 자신의 색을 바꾸고 그 때 그 때 유효한 논리를 만들어내며 그것을 위해 모든 레토릭을 동원했다. 대부분의 레토릭은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빌려온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적절치 못했다. (중략) 그는 대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비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대다수의 인간이 어떤 논리에 움직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논리일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논리처럼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중의 감정을 환기시키느냐 마느냐였다. (제1부, pp.141~142)⁸⁾

8)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태엽 감는 새』의 문장은 1997년 신초사(新潮社) 문고본임을 밝혀둔다. 이하 몇 부인지와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와타야 노보루의 인간성의 본질을 지적한 것으로, 그는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 내용도 없이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맞춘 공허한 논리로 상대를 쓰러트리려는 빈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대중들의 감정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논리적 모순, 공허함을 논증할 수 없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 의식은 없다. 이는 현대일본사회의 공허함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현대일본사회의 공허한 논리를 대변하는 노보루의 세계는 니가타(新潟)의 백부의 선거구를 물려받아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입후보하면서 잡지에 기고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일본사회는 깊고 긴 정신의 위기적 카오스를 눈앞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변동에 따라 일본의 전후 정치사회구조, 정신구조도 근간에서 변혁에 쫓기게 되었다. 많은 분야에서 상황은 백지로 돌아가고 커다란 틀이 재구축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자명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이미 자명한 것이 아니게 되었고 허망하게 그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일본이라는 국가가 변모할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절호의 찬스를 눈 앞에 두고서도 그 재구축의 지표로 사용해야 할 공통의 원리를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 아마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패러독스를 앞에 놓고 망연자실할 것이다. 공통의 원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공통의 원리의 상실소멸 그 자체라는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다.

노보루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지표 없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거기에는 적어도 잠정적 가설적 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현재의 시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은 아마 「효율」정도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방향성이 명확할 때에 유효한 힘이다. 한 번 방향성의 명확함이 소멸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력화된다.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방향을 잃었을 때 숙련된 노 젓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 봤자 소용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효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 곳으로도 가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것이다. 바른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은 보다 고도의 직능을 갖는 원리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그것이 없다. 결정적인 결핍이다’(제3부, pp.280~281)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선거구를 물려받는 백부는, 일본이 경제 혹은 실질적인 봉쇄를 받으면서 북방에서 장기적으로 대 소비에트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양모 공급 및 가공시설 확보를 위해 그 상황을 시찰을 목적으로 1932년 건국직후의 만주국에 건너갔던 인물이다. 그는 봉천에서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를 만나는데, 이시하라는 만주국이 궁극적으로는 대 소비에트전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대영미전을 위한 일본의 병참기지라고 인식하고, 대서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밖에 없으며 다른 여러 나라는 그들이 서구제국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일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대부분의 군인은 병참을 연약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장비는 부실하더라도 몸을 던져 과감하게 싸우는 것이 폐하의 군인의 길이며 빈약한 장비와 적은 인원으로 강력한 상대를 맞이하여 전과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무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병참이 따라가지 못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적을 구축하여 전진하는 것이 명예라고 간주했다. 노보루의 백부는 이시하라의 명석한 논리와 세계관, 카리스마적 인간성에 심취하여 귀국 후, 두 사람의 친교는 계속되었다. 만주국내의 면양사육현황, 가공시설에 대한 치밀하고 정확한 그의 보고는 본부에 제출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39년 노몬한 사건의 뼈아픈 패퇴에 의해 또 영미의 경제제재강화에 의해 군부의 눈은 남방으로 향하게 되었고 대소비에트 가상전 연구반 활동은 시들해졌다. 대본영은 전쟁에서 손을 떼고 홀름바일 초원의 한 구역을 외교교섭으로 외몽고와 소비에트군에게 양도했다.

노보루는 백부에게서 들은 그 에피소드에서 병참선 사상을 모델로 지역경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백부는 종전 후 맥아더 점령군에 의한 공직추방을 받고 한 동안 니이가타에서 은둔생활을 했지만 추방지령이 해제되자 정계에 진출하여 보수당으로 나와 참의원 의원에 2회 당선되고, 중의원도 되었다. 대신직도 한번 경험했던 그는 고향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치적 기반을 조카인 노보루에게 물려주었다.

노보루가 백부의 정치적 기반을 물려받아 입후보하는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하여 천황의 군대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던 주요인물들의 가치관을 현대일본사회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주장되는 논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서구제국주의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아시아민족의 해방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의 주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치관이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잡지에 평론을 쓰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여 정치, 경제 문제의 코멘테이터가 된다. 현재는 토론 프로그램의 고정출연자가 되었다. 원래 학자타입인 그이지만, 매스컴의 세계에 들어서자 현실세계에서보다 카메라를 향하고 있을 때 쪽이 더 편안해 보였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추어지는 그는 실물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 보였다. 또한 노보루의 세계는 제3부에서 내가 노보루의 제안에 따라 구미코와 컴퓨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에 의해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노보루는 자신의 의지, 가치관을 지니지 않고 부모로 대변되는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사회의 의지를 실현하는 빈껍데기 인생을 사는 인물이다. 그의 삶에 대한 욕구는 죽은 동생의 옷에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되며 크레타나 구미코의 의식을 더럽혀 무감각하고 빈껍데기로 만드는 폭력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공허한 논리나 욕구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어 대중들의 감정을 지배하고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컨트롤하면서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③ 고양이의 실종과 구미코의 가출 원인

이상과 같은 노보루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굴절된 소녀시절을 보낸 구미코는 나와 결혼한 후 행복한 생활을 한다. 그것은 그녀가 기른 고양이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 고양이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그녀의 다음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고양이는 우리들이 결혼한 다음 주에 둘이서 발견한 고양이야. (중략) 아직 새끼고양이였는데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 큰 비가 내려서 나는 당신을 역까지 데리러 갔어. 우산을 들고 말야. 돌아오는 길에 술집 옆 빈 상자 속에 그 고양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 고양이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른 고양이야. 그 고양이는 나에게는 소중한 상징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안 돼.(제1부, pp.90~91)

고양이는 구미코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준 존재라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결혼한 다음 주 남편과 함께 발견한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정, 삶을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것의 상실은 구미코에게는 자신의 존재감 상실을 의미하며 구미코의 가출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크레타와 함께 그리스로 떠나려 한다. 그러나 마미야 중위로부터 혼다 씨의 유품을 전달받고 그들의 노몬한 체험에 대해 들으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녀의 행방을 좇아 구출하고자 결심한다. 그렇다면 존재감을 상실한 구미코의 가출에 노몬한 체험,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직전의 만주국의 상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2) 노몬한 전쟁과 존재감의 상실

노몬한 체험,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직전의 만주국의 상황은 점쟁이 혼다(本田)와 그의 유품을 전달하기 위해 온 마미야 중위의 입을 통해, 그리고 제3부에서는 시나몬의 외조부인 수의사의 시점에 의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혼다와 마미야 중위는 1938년 4월 야마모토(山本), 하마노(浜野)와 함께 할 하강 건너 몽고령에 비밀 지령을 수행하는데 참가한 적이 있다. 관동군에서는 흥안군(興安軍) 출신의 몽고인을 모은 모략부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몽고는 소련에 의해 지배받는 위성국가, 소련군의 횡포에 반감을 품는 군인, 강력한 농업집중화에 반대하는 지주계급, 10만을 넘는 라마교 승려는 반소련파로 만주국 일본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했다. 러시아인보다는 같은 아시아인인 일본인에게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당시 만주국과 국경을 접하는 소련과 외몽고는 국경선 침범에 매우 민감해져 있었다. 혼다와 마미야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비밀임무를 띠고 몽고령에 잠입했다가 인간을 살아있는 채로

깍뎡이를 벗겨 죽이는 잔인한 살육현장을 체험하고 마미야는 사막의 마른 우물
에 던져져 극한 상황을 체험한다.

마미야는 그 후 1945년 8월 소련군 침공시 왼팔을 잃는다. 팔을 잃은 것은 죽
을 생각으로 국경에 가까운 하이라르 부대에 지원하여 부대의 선두에 서서 지
뢰를 손에 들고 소련군 전차부대에 육탄공격을 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위로부터
의 명령에 의한 행동으로 헛된 자살행위와 같았다. 이후 그는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포로수용소에서 1949년까지 억류되었다. 소련군은 만주를 점령
한 후 포로로 잡은 일본군 병사를 시베리아에서 강제노동시킨 것이다. 그 시베
리아 탄광채험에서 마미야는 ‘나는 사상 그 자체는 믿을 수 있지만, 사상이나
대의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나 조직은 신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 탄
광은 중요전략시설로서 그 위에 있는 정치국원은 야심으로 가득한 냉혹하고 엄
격한 인간이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인적소모는 안중에 없었고 오로지 석탄 산출
량이 중요했다. 그것은 밑에 있는 간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
들이 영양실조, 과도한 소모, 지반사고, 물 사고, 전염병, 간수들의 폭행, 같은
일본인들끼리의 린치살인 등으로 죽어가는 잔인한 세계이다. 12년간 대륙에 있
다가, 고향인 히로시마에 돌아왔을 때, 여동생은 시내 공장에 징용되어 일하다
왼쪽을 맞아 사망했고, 아버지도 여동생을 찾아다니다가 사망했으며, 어머니는
그 쇼크로 병이 들어 1947년 사망했다.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고향에는 무덤까지 생겼다. 이후 마미야는
‘텅 빈’ ‘깍뎡기’가 되어 무감각한 삶을 산다.

혼다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旭川) 출신, 중학교 졸업 후 형과 함께 아버지의
인쇄소 일을 도왔으며, 큰 형은 중국에서 전사했다. 노몬한 전쟁에서 부상당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의 부인은 전후 얼마 안 있어 다른 남자와 동반자살
했다. 이후 그는 아들, 딸을 키워 독립시키고 나서 도쿄에서 혼자 살았다.

이들에게 전쟁이 무엇이었는지는 작전에 함께 참가했던 하마노의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하마노는 야마구치(山口) 출신으로 초등학교를 나왔을 뿐이지만
중국에서의 지켜온 전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혼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병사이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전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전쟁은 아닙니다, 소위님. 그것은 전선이 있어서 적이 공격을 해오는 제대로 된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진합니다. 적은 거의 싸우지도 않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패주하는 중국군은 군복을 벗고 민중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적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적 사냥, 모든 패잔병 사냥이라 하며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전선은 점점 앞으로 나가는데 보급이 따라가지 못하므로 우리들은 약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남경에서는 아주 심한 짓을 했습니다. 저희 부대에서도 했습니다. 몇 십만 명이나 우물로 뛰어들고 위에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 밖에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짓도 했습니다. 소위님, 이 전쟁에는 대의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걸 그저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린되는 것은 결국 가난한 농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상도 무엇도 없습니다. 국민당도 장학량(張學良)도 일본군도 없습니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어부의 자식이므로 가난한 농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서민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밤까지 악착같이 일해서 그것만으로 먹고살 만큼 밖에 벌지 못 합니다, 소위님. 그런 사람들을 아무 의미없이 구석구석 죽이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제1부, pp.260~261)

당시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전쟁은 어떠한 가치도 대의도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약탈과 살육임에 다름 아닌 잘못된 전쟁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미한 전쟁의 폭력성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부재가 초래한 것으로 상부의 명령을 아무 판단과정 없이 맹목적으로 수행한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전쟁뿐만이 아니다. 몽고인들은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몇 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인 것이다. 그들은 키예프에서 포로로 잡은 러시아 귀족들을 두꺼운 판 밑에 깔고 그 위에서 축연을 하여 깔려 죽게 했다.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인 장교(별명은 껌질벗기기 보리스) 보리스 그로모프는 내무성비밀경찰 NKGB의 소좌로, 1938년 군사고문으로서 울란바토르에 파견되어 몽고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해 악랄한 탄압을 가하였다. 그의 잔학한 고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마미야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당신과 같이 극히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오자 곧 소집되어 반 강제적으로 간부후보생이 되었고 그길로 내지에 돌아오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덧없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제1부, pp.246~247)

당시 평범한 젊은이였던 자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강제징집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미야 중위의 노몬한 체험에서는, 전쟁이란 평범한 인간들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에 의해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의 삶을 해치고 살해하는 폭력행위이며, 살아남은 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빈껍데기로 만들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폭력성을 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혼다가 나에게 노몬한 체험을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선물이 텅 빈 카티삭 증정용 선물상자라는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즉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에 의해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상실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결과를 낳는가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러한 혼다의 메시지는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고양이와 아내가 사라진 후, 친구도, 일도, 수입도, 장래에 대한 전망도, 살아갈 목적도 없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쓰레기나 돌 같은 삶을 산다. 혼다의 메시지는 이러한 나로 하여금 노보루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계에서 자신을 상실하고 빈껍데기가 되어버려 공포와 고통과 절망감에 빠져 무감각한 삶을 사는 아내 구미코를 구제하기로 결심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나가 아내를 구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3) 구미코의 구제의지와 상호소통

나는 구미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 구미코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구미코가 가출한 지금에 와서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아간다.

구미코는 그것에 대해 컴퓨터를 통해 이야기한다. 구미코는 뭔가의 이유에 의해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세계로 나뉘어졌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자신은 결혼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다른 가능성, 뭔가 출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영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편지에서 ‘세계는 자신이라는 인간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텅 빈 인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략) 그래도 그것 말고 세계는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격심한 성욕을 갑자기, 그것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상대에게 품게 되었는가?”하는 것입니다’(제2부, p.195)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가치를 상실하여, 빈껍데기 뿐인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와 같은 자신의 세계의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하려고 생각하면 어찌된 일인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라든가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일반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괴로워’라고 하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사실을, 나는 구미코가 가출하고 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당시 훗카이도의 가수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공감하는 힘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라는 좁은 껍질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과 고통과 기쁨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깨닫는다. 특히 그녀는 낙태수술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두 사람에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말야, 거기에는 당신이 모르는 것도 있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말하지 못 한 것도 있어.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을 말할 수 없어.(제2부, p.322)

나는 이 말을 떠올리며 구미코가 자신의 고통을 나와 공유하고 싶었던 것임

을 알고, 그 무언가 구미코가 말하지 못 했던 것, 그녀를 혼란하게 했던 것을 찾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런 그녀에게 귀기울이지 않았다. 그러한 상호소통의 불가능은 구미코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는 거의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와 같이, 외부세계와의 단절감, 고독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단절감이나 고독감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닐까. 모두 어딘가 어두운 곳에 틀어박혀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빼앗기며 천천히 죽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식으로 도처에서 언급되고 있다. 나와 구미코는 모두 고독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면에서 닮은 것이다.

구미코는 상호소통에 의해 자신의 내부세계에 있는 고통을 나와 공유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와 달리, 그녀의 고통을 공유하고자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물 속으로 들어간다.

내 몸은 마치 박제된 동물같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제2부, p.148)

나는 그 완벽한 암흑 바다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無)뿐이었다. 나는 그 무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중략) 그리고 또 조금씩 내 의식은 그 육체를 빠져나갔다. 나는 자신이 태엽 감는 새가 되어 여름 하늘을 날아 어딘가 커다란 나무 가지에 앉아 세계의 태엽을 감는 것을 상상했다. 태엽 감는 새가 만약 정말 사라져 버렸다면, 누군가가 태엽 감는 새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대신 세계의 태엽을 감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세계의 태엽은 점점 느슨해져 가서 그 정묘한 시스템도 결국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태엽 감는 새가 사라져 버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중략) 세계의 태엽을 잘 감는 것은 태엽 감는 새뿐이다. 하지만 나는 태엽을 감을 수 없는 무음(無音)의 태엽 감는 새로서 한 동안 여름 하늘을 날아보기로 했다.(제2부, pp.158~159)

일단 의식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여, 구미코가 자신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을 주재하는 것은 자연이지만, 나는 나 자신의 시간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감각하게 텅 빈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주재하며 사는 것이다. 즉 우물 속에 들어가는 행위는 의식의 바닥에서 삶이나 존재의 근원을 친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우물 속에 들어가 온 의식을 집중하여 구미코를 생각하는 것은 그녀를 구제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찾는 길이기도 했다.

물론 구미코를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원래대로 행복해 질 수도 없고,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구미코를 데려오고 싶다. 내 손으로 이 세계에 데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나라는 인간도 역시 이대로 계속 상실되어 갈 것이라 생각된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구미코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음을 자각한다. 그런 그에게 크레타는 ‘이 세상은 피비린 내 나고 폭력적인 세계라서 강해져야만 한다. 동시에 어떤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면에서 부딪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구미코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의식의 세계에서 구미코 대신 와타야 노보루를 찌른다. 이는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적어도 내 기억 속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이 거의 같은 무게와 선명함으로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하고 있듯이, 그것은 나에게 현실과 같은 무게와 의미를 갖는다. 크레타와 결합한 후 현실세계에서 사정을 한다거나 의식세계에서 생긴 얼굴의 반점이 현실세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의식세계의 체험이 실재하는 현실임을 이야기해 준다. 여기서는 나의 의식 속에서의 행동이 현실에서는 노보루의 심장발작으로 나타난다.

이후 나가 현실세계로 돌아오자 우물 속에 물이 있었다. 그것은 원래 오랫동안 방치되어 생명력과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여 무감각하고 무생물적인 말라버린 우물이었었다. 그에 대해 나는, ‘이제는 이곳에서 신체를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 세계로, 빛이 넘치는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그러나 왜 갑자기 물이 솟아난 거지? 물은 오랫동안 말라서 죽어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물은 갑자기 회복한 생명을 찾아왔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한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 그 원리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구

미코를 현실세계로 데려와 구제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실현되어 그 생명력을 회복한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이탈리아 철학자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하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듯 현재 한 개인의 존재, 자아, 의식을 파고들면 결국 역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현실인식의 실천작이라 생각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태엽 감는 새』는 전쟁의 폭력을 상대화시키고 그 폭력장치에 대한 내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작가의 역사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자행되었던 폭력과 관련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본 논문에서는 구미코의 실종사건을 통해 하루키 문학의 일관된 테마라 할 수 있는 현대인의 상실감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묻는 데에서 출발하여 노몬한 전투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태엽 감는 새』에는 전쟁기간 동안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에 의해 운명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인들을 무감각한 빈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적 세계에서 상실된 존재감의 회복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힘이라도 무엇인가를 실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의 집필시기인 1990년대 초는 한마디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버블경제 해체를 틈타 일본에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작가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본의 국내 상황을 외부에서 상대화시킨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개인의 문제를 역사나 국가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 집필시기의 전쟁 책임의 문제는 작품 내 현재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1984년을 전후로 한 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작품 내 현재로 설정된 198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배경의 의미는 그

러한 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1980년대의 상황은 1970년대의 석유과동이 라는 상황에서 온 것이고 그것은 또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 1950년대의 전쟁특수.....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의 상황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 까지 이른다. 작품 내에서 역사로 이야기되어 지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추구는 과거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환상이 수많은 개인의 삶과 운명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무력화한 것처럼 현재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거의 망령들이 개인의 삶과 운명을 빈껍데기로 만들고 무력화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 내준다. 그리고 그와 같이 환상이나 의식의 활동이 현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맞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식 속에서 라도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 현대인의 상실감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은 책임의 주체를 애매하게 하는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역사왜곡, 그에 따른 아시아 각국으로 부터의 전쟁 책임문제의 급부상이라는 작품 집필시기의 일본 사회에 어떻게 코 미트해야 할까에 대한 작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답에는 일본 인으로서의 개인의 존재의의나 운명의 문제만 포함되어 있고 정작 아시아각국 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현대일본인들의 존재의 의나 운명을 거슬러 올라간 결과 그 근원으로 그려지고 있는 전쟁이란 실패한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는 노몬한 전쟁으로 1945년 패전을 맞이한 일본인들의 운 명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전장에서 일본인들이 행한 잔학한 폭력행위 에 대한 언급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몽고인, 러시아인, 독일인들이 행 한 잔학행위와 동질적인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어 그 폭력의 피해자였던 아시아 인들이 목소리를 낼 근거를 없애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에 공허감을 매개로 한 하루키의 역사인식이 어떠한 지점에까지 도달했는지, 그 리고 그것이 현대일본인의 집단적 무의식과 어떻게 공진(共振)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존 키건 지음, 류 한수 옮김(2007) 『2차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安原顯(1994) 『本など読むな』 図書新聞
風丸良彦(1997) 『「もどかしさ」という凶器』 『群像』 3号
加藤典洋編(1997) 『村上春樹イエローページ』 荒地出版社
鈴木和成(1994) 『村上春樹クロニクル 1983~1995』 洋泉社
中條省平(1994) 『リテール』 夏号
中村政則(2006) 『戦後史』 岩波書店
久居つばき(1994) 『ねじまき鳥の探し方—村上春樹の種あかし』 太田出版
村上春樹(1999) 『村上春樹、河合隼雄に会いに行く』 新潮社

- ❖ 투고일 : 2007. 6. 30.
- ❖ 심사일 : 2007. 7. 30.
- ❖ 심사완료일 : 2007. 8. 13.